

본당 모임 및 교육

|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 레지오 마리아 주회 | 본당 제단체 모임 | 구역 연락처(13구역) |
|--------------------------------|-------------------------|------------------------|----------------------|
| 사목회의 (마지막, 일) 3시 미사후 | 순교자들의모후 (화) 6:00 PM |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 총구역장 817-721-5050 |
|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 사랑의 샘 (화) 6:00 PM | 울뜨레야 (둘째 일) | 알랜, 맥키니 미정 |
|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 십자가의 모후 (화) 6:00 PM | 구리아 (셋째 일) 12:30 PM | 캐롤튼 908-770-8694 |
|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 벨기도 (2,3주일) 10시미사후 | 코펠 469-231-2002 |
|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 청년회 (토) 6 PM | N. 코펠 480-465-3853 |
|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 평화의 모후 (토) 3:30 PM | 교사회 (일) 9:15 AM | 던컨빌 469-328-3831 |
|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 자비의 모후 (토) 6:15 PM | 쿨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 갈랜드 972-795-9706 |
| 대건회, 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 황금궁전 (일) 11:30 AM |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 얼빙 214-681-4225 |
| 하상회, 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 E. 프리스코 469-925-9343 |
| 이나시오회, 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 W. 프리스코 469-831-6531 |
| 사도회, 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 E. 플레노 미정 |
| 토마스회, 30대 (셋째 토) 4 PM |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 이나시오영상 (월, 수, 목) 8 PM | W. 플레노 972-544-8703 |
| 주일학교&청소년 (일) 10:00 AM-11:15 AM | 승리의 모후 (목) 6:10 PM |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 리차드슨 214-701-7688 |
| 한국학교 (토) 9:30 AM-12:30 PM |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 성경100주간 (수) 8 PM, Zoom | 밸리랜치 214-664-0158 |
| | |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 |
| | | 복자재속회 (셋째 일) 5 PM | |

교우 업체 소개

| | | | |
|---|---|---|--|
| <p>Smartec 보안카메라/네트워크/오디오/비디오</p> <p>설치, 수리 및 관리 전문 업체 우병태 라우렌시오 Tel 214-629-2663 info1@onesmartec.com</p> | <p>노바 덴탈 김하운 소피아</p> <p>Tel (817) 462-1022 1231 E. Pioneer Pkwy #101 Arlington, TX 76010</p> | <p>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주택/상가리스</p> <p>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p> | <p>Celebration Co. Wedding, First Communion, Baptism, Prom, Special Occasions</p> <p>11818 Harry Hines #224 Dallas 972-243-2400 www.celebrationdallas.com MON-SAT 10:30-7</p> |
| <p>NCCDP National Council of Certificated Dementia Practitioners</p> <p>'도란도란' 토요일봉사센터</p> <p>Memory Focused Day Care (972) 506-0177 (자원 봉사자모집) 은혜복지센터/KAS협력 www.gracedahs.org</p> | <p>정관장 홍심 달라스 직매점</p> <p>캐롤튼 H 마트 후문 앞 (214) 483-3838</p> | <p>OK 에어콘 대표 이정기</p> <p>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p> | <p>E & K Electric</p> <p>*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p> |
| <p>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p> <p>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p> | <p>루시에어로빅스 Aerobics, K-pop Zumba, Pilates, Yoga</p> <p>루시 김 : 972-795-9706 (오전반) 캐롤튼 2640 Old Denton Rd. #200 Carrollton (오후반) 달라스 한인 문화센터 11500 N Stemmons Fwy. #185 Dallas</p> | <p>한라산소주, 대선 화요, 좋은데이</p> <p>텍사스 총판 Tel 917-794-9684 min@eveenterprisellc.com</p> | <p>메디케어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플랜 은퇴연금, 롱텀케어, 생명보험상담</p> <p>유니스 안 (수산나) Tel 469-777-2856 coverus21@gmail.com</p> |
| <p>조앤박부동산</p> <p>주택, 세입, 이주 정착 솔루션 서비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이전트</p> <p>박성아 소화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p> | <p>MDMartin 스태핑, 컨설팅</p> <p>MARK LEE 사이트 매니지먼트</p> <p>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p> | <p>Shine Learning Center CHRISTY LEE</p> <p>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템 Carrollton Campus : 214-716-7913 Frisco Campus : 469-535-3333</p> | <p>홍신희중합치과 Midway Dental</p> <p>Fastbraces로 치아교정 3-12개월</p> <p>(972) 241-6862 (972) 800-0448 (Cell) 13740 Midway Rd #506 Dallas, TX 75244</p> |
| <p>북나라 Book Nara</p> <p>캐롤튼 H마트 몰</p> <p>7 days open Tel 972-245-2665 이건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p> | <p>Texas Back Institute (TBI) 정형외과 척추(어리, 경추)전문</p> <p>Dr. 안준영 (Junyoung Ahn)</p> <p>469-390-6600 info@texasback.com 500 W. Main St. #380 Lewisville, TX 75057</p> | <p>맑음 헤어살롱 Hair Salon</p> <p>Tel 972-693-6247 코마트 옆</p> | <p>앤드류정 부동산</p> <p>주택/뉴빌더홈 주거용토지/투자용부동산</p> <p>Cell 214-663-8266 Ac.txrealtor@gmail.com 3370 Long Prairie Rd #650 Flower Mound, TX 75022</p> |



달라스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2024년 6월 9일

연중 제10주일

제 259918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 1 독서] 창세기 3,9-15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7-8(◎ 7,8)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 2 독서] 코린토 2서 4,13-15,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3,20-35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시다.

| 성가 | 시작 | 봉헌 | 성체 | 파견 |
|----|-----|-----|----------|-----|
| | 209 | 218 | 161, 166 | 400 |

미사안내

| 주일 | 토요일 | 5:00 PM | 한국어 |
|----|-----|----------|-----|
| 주일 | 일요일 | 10:00 AM | 한국어 |
| | | 12:00 PM | 영어 |
| | | 3:00 PM | 한국어 |
| 평일 | 화·목 | 7:30 PM | 한국어 |
| | 수·금 | 10:00 AM | 한국어 |

성사안내

| | |
|------|------------------|
| 고해성사 | 매 미사 30분 전-고해실 |
| 유아세례 | 2,5,8,11월 첫째 토요일 |
| 혼인성사 |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
| 성 시간 |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

성당정보

| | |
|-------|-------------------------------------|
| 주임신부 | 조재형 가브리엘 |
| 부주임신부 | 윤충훈 세례자요한 |
| 수녀 | 이체칠리아,한베로니카 214-762-5794 |
| 사무실 | 972-620-9150 |
| 종신부제 |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
| 사목회장 | 한재민 야고보 214-475-0619 |
| 팩스 | 972-484-4628 |
| 주소 |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

예비자교리

| | |
|----------|---------------------------|
| 일 | 11:00AM - 12:15 PM |
| 성경 공부반 | 수 7:00 PM (남성반) 이요한 부제 |
| | 수 11:00 AM 이세실리아 수녀 |
| | 수 11:00 AM 박비비안나 |
| 사무실 업무시간 | 일 9:00 AM - 5:30 PM |
| | 월 휴무 |
| | 화·목 12:30 PM - 8:30 PM |
| | 수·금 9:30 AM - 6:00 PM |
| 토 | 10:00 AM - 6:30 PM |

강론



연중 제10 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델러스 인근에 '보현사'엘 다녀왔습니다. 스님도 성탄 때는 성당으로 왔다고 합니다. 보현사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이 '여자 스님'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 스님인 줄 알았는데 여자 스님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 예불 종이라서 법당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남짓 기다리면서 성당과는 사뭇 다른 사찰의 예불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끊임없이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을 외웠고, 불자들도 따라 하였습니다. 성당의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찰의 예불은 목탁과 염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당은 제대와 신자 석이 있고, 신자 석은 대부분 의자로 되어 있는데 사찰은 아직 의자가 아닌 방석이 깔린 바닥에 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스님과 차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공양하고 가라고 했는데 차만 마시고 왔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회가 동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었습니다.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박해와 시련이 있었었습니다. 동양의 종교인 불교가 서양에 전해지는데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주일로 옮겨서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면서 언젠가 미국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아담의 아들 카인에게도 하십니다. '카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카인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은 어디에 있다고 대답하기 전에 알몸이라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카인도 하느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카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이 스스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보현사의 지암 스님이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의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나 어디에 있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스님이 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제로 33년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찰의 분위기와 사찰의 문화가 제게는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보현사에서 17년을 주지 스님으로 지내고 있는 지암 스님은 전임 신부님들과도 인사했다고 합니다. 스님 또한 성당의 사제가 되라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출가해서 30년 넘게 불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당의 분위기와 성당의 문화가 생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도, 하느님께서도 스님과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하느님께

서도 스님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스님이 '탐, 진, 치'를 떨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며 팔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처님의 물음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복음삼덕과 향주삼덕'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저 역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묻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된 이의 죄를 묻기 전에, 그들이 누우칠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틀'을 새롭게 하십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를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는 모두가 불자이듯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공 지 사 항

2024년 사목 목표 "친교의 공동체"

-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 성오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 매일 오후 3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

- 긴급 재해 2차 현금 달라스 교구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토네이도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하여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북미주 서울대교구 사제 모임 기간 : 6/10 (월) ~13일 (목)

<미사 스케줄 변경>

** 6/12 (수)
본당에 미사가 없습니다.

- 6월 청년 교리 교육 안내
일시 : 6/15 (토), 6/22 (토) 오후 3~4시
내용 : 갯세마니에서 드린 예수의 기도, 죽음 앞에서 드린 예수의 기도

- 영어권 청년피정(2024 Christus Retreat) 참가자 모집
아래와 같이 두 번의 피정 중에서, 참가자는 하나의 피정에 참여합니다.
-피정1 : Veni Domum (Come Home)
-일시 : 24년 6/28 (금)-30 (주일)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피정2 : Alter Christus (Another Christ)
-일시 : 24년 7/19 (금)-21 (주일)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5300 Crest Rd. Rancho Palos Verdes, CA90275)

선착순 : 청년 10명
신청 마감 : 6월 16일 (주일)
접수 (사무실) : 참가자 명단 작성(추후 윤신부의 확인 필요)
참가비 : \$240(추후 본당에서 기부금으로 지원)
항공비 : 인당 최대 \$300(추후 크리스투스 피정 측에서 지원)
크리스투스 피정 홈페이지(<https://www.christusretreat.org>)
*영어권 10명 청년들의 참가비 (\$2,400)를 기부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 윤충훈 신부 (Fr. John Yoon)

- 제 4회 본당 신부님배 골프 대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9/3, 화) 준비를 위한 행사.
일시 : 6/30 (일) 오후 1시
장소 : Hackberry Creek Country Club
참가비 : \$120 (신청은 사무실)
문의 : 고광범 사도요한 469-387-9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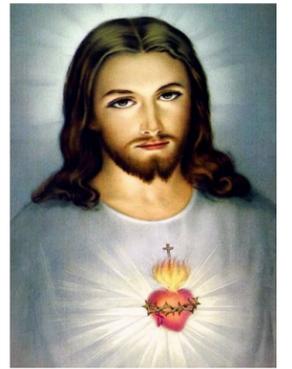
마감 : 6/26 (수) 오후 6시
시합 후 본당 친교실에서 시상 및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음식물은 치워주시고, 레지오 단원들은 꽃병과 꽃들을 정리하시고 청소해주시시오.

점심 봉사 E 플래노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원옥(크리스티나), 엄찬길(찰스), 오현정(클라라), 이정구(바오로), 강경순(요안나), 마하해(스텔라), 윤지희(미카엘라), 전용환(요한), 김정자(유리엘), 김성희(글로리아), 정영철(사베리오), 이규식, 이에린(세실리아), 하정희(울리아), 이상원(스테파노), 기길자(루치아), 김외분(프란체스카), 정상옥(젬마)



| 건축헌금 | | 교무금 | | | | | |
|------------------------|---|-------|--------------|----------|------------|-------|------------|
| 김상희 (100) | 강제인, 강젬마, 조폴, 폴라 기쿠치, 김관호, 오영주, 희숙 드멜로, 송하창, 허영근, 이순여, 송한규, 박피터, 최연, 정순구, 정성룡, 임창민, 이정구, 한안토니, 장하운, 손영신, 박영진, 윤영주, 한원희, 종숙 아빌라, 김수일(2), 조영아, 한재민, 설동명, 이재훈, 박찬병, 김숙자, 강정일, 임종후, 우호선, 김현옥, 이정철, 김봉현, 한익수, 이종국, 이광주, 송광웅, 이동성, 전영창, 김중분, 서경옥, 이병규, 이광휘, 이동성, 김순영, 임주희, 윤안젤라, 안인현, 이제이슨, 고정석, 김연희, 전피터, 심윤정, 김미옥, 김정기, 오세원, 임재신, 홍영순, 손명애, 김상희, 서경전, 웹태선.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 | | | | | |
| 이종국 (50) | | 건축 | \$206.00 | 교무금 | \$8,202.00 | 주일 헌금 | \$43,58.00 |
| Joseph Traylor Jr. (6) | | 일반 | \$360,976.06 | | | | 주일 총액 |
| 한원희 (50) |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 화 41명 | 수 20명 | 목 42명 | 금 28명 | | |
| | 주일 미사 참석자 수 | 토 72명 | 10시 402명 | 12시 195명 | 3시 68명 | 주일 합계 | 737명 |